



HEADLINE			
<p>뉴스 2P</p> <p>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p>	<p>뉴스 12~13P</p> <p>2014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핫 이슈</p>	<p>인물 14P</p> <p>그대와 함께 걷는 길</p>	<p>국제 18P</p> <p>장애 옹호와 코미디언의 유산 스틸라 영</p>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9기 시·도협회장 임명

연임 13명, 신임 4명, 12월 1일부터, 3년 임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1월 26일 이룸센터 다목적실에서 제9기 시·도협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지장협 전국조직의 새출발을 다졌다.

지장협 17개 시·도협회 중 13개 지역은 연임됐으며 인천(임순봉), 광주(최남규), 전남(장재곤), 경남(김덕선) 4개 지역은 새로운 협회장이 선임됐다.

연임된 지역은 서울(손영호), 부산(김광표), 대구(김창환), 대전(구자권), 울산(정태희), 세종(정금종), 강원(김홍수), 경기(김기호), 충북(변창수), 충남(이건휘), 전북(김형곤), 경북(김영식),



제9기 시·도협회장들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부형중) 13개 지역이다. 지장협 양병춘 조직지원부장은 “이번 시·도협회장 인선을 위해 중립적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했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했다. 보다

객관적이며 협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임과정에 대해 밝혔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우리 지장협 조직의 근간이 바로 지방조직에 있다. 지장협을 바로세우고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우리의 창립 정신을 되새겨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지장협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며 시·도협회장 임명에 따른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시·도협회장들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다.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마케팅 동향과 소통 교육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최근 마케팅 분야의 동향과 사회 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실무적용 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펼쳤다.

하나경영경제연구소 이호정 강사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SNS 마케팅)’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고, 지장협 기획정책국 김영근 국장이 ‘법인의

이해’를 설명했다. 이어서 AG Company 대표 컨설턴트 김은정 강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감성지능 의사소통 기법(감성마케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지장협 시설지원부 나광석 과



‘2014년 직업재활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은 “최근 마케팅동향이 소량 개별화되고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앞으로도 더

욱 다양한 분야별 정보를 준비해 실무자 역량 개발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행사 기획 의미를 밝혔다.

지장협 김영근 국장 등 5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4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 성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2월 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4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 활동가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 한 시상식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 광주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 소장, 대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선우 소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인영 팀장,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주재민 과장이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장협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편의증진과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국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 송구스럽다."면서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닌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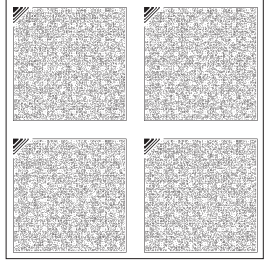


2014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 수상자와 내빈들

일 뿐이며, 이제 우리 사회가 '다' 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배려가 당연 활동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완배 상임대표는 "다섯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현장에서 언제나 묵묵히 애쓰시는 우리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들이 있어 지금의 장애계가 있고 이 자리가 만들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이어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복지 환경과 정책도 증진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와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 제고와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2006년부터 시상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왔다.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1~2급으로 한정했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3급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4월 종합 3급 장애판정을 받고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고 송국현 씨의 사건 이후 자격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돼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당우리교회, 국내 최초 중고령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 개소

장애인 접근 편리한 최신식 공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는 12월 1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장년만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 '우리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분당구 중심상업지역 한 가운데인 서현동에 위치한 신규 건물 9층에 마련한 센터는 약 300평방미터 규모다. 장애인 접근이 편리하고, 조망과 채광을 고려한 최신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우리주간보호센터에 입소 가능한 대상자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중장년이다.

분당우리교회 측은 "중장년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과 가족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다."며 "보호자의 노령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 시간동안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중장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1호 2014년 12월 22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실현 방안 논의

제8회 한국DPI대회 성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장애인 인권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2월 3~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된 제7회 한국DPI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제는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성 한국DPI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과 성년후견인제,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모델에 치우쳐 있는 장애판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권리협약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진정한 장애인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8회 한국DPI대회가 진행됐다.

컨퍼런스1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예상되는 장애인서비스

관련 체계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설명했다. 직접지불제도와 개별예산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컨퍼런스2에서는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

등급제 폐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그 대안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가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등급제를 단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등급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컨퍼런스3, 4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섹션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한 설명과 향후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장애계의 역할을 다뤘다.

다음날 장애주제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소득보장과 편의시설에 대한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한국DPI 대회는 총 300명이 참여했다.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장애인 인권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 수상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차별금지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12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시상식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실천, 인권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총 4개 부문에서 수

상자를 선정했다.

인권실천부문의 한국장애인인권상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사)유엔인권정책센터가 수상했고, 인권매체부문은 세계일보 박태해, 김태훈, 서필웅, 김승환 기자가, 기초자치부문은 경기도 안산시, 공공기관 부문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변승일 공동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은 동행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장애인 스스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장애인권리선언(1975년 12월 9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2월 9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실천을 해 온 장애인 인권 공헌자의 노력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시상해왔다.

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시 부담 줄어

장애인연금심사 서류로 장애등급심사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가 1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등급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등

를 위한 심사대상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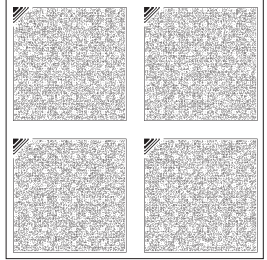
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자료

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기간을 15일에서 21일 이내로 확대했다.

심사기준이 단순한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 시·도협회장 취임사

서울 협회장 손영호



밝아오는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협회를 안정 발전시키고자 했던 많은 계획과 노력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임기동안 협회를 더 힘 있고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가되, 안으로는 내실 있게 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회원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협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는 25개구 지회 및 243개의 동분회로 구성된 최대의 장애당사자 단체로서 그 역할 및 영향력에 있어서 장애인계 및 장애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므로 새로운 임기 동안 그에 걸 맞는 역량과 위치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각 25개구의 지회장과

직원들은 회원들과 화합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지역 내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회원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편의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 당사자 단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는 것 발아래 올미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회원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협회가 앞장서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협회장 김광표



먼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 협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김광환 중앙회장님 및 협회 임직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이라는 거대한 이름

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직의 발전과 장애인 권의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봉사하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묵은 것은 제거

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변혁이 아닌 새로운 것의 폐단과 옛것의 가치를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지켜나갈 부분은 계승·발전시켜 나

갈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은 어려운 현실에서 진정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의 주권확보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구 협회장 김창환



부족한 제가 제9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재선임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협회장이란 중책을 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요즘 세종대왕께서 인용하신 '임사이구(臨事而懼)'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 잘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모든 분들의 따듯한 충고에 귀 기울여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투명하고 투명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역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활발히 참여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와 체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장애인복

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협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로서 위상을 가지고 지역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따뜻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천 협회장 임순봉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들 여러분! 우리협회 월간 새보람 애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9대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한 임순봉 지면으로나마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금번 협회장 선임 신임을 하면서 지역 장애인복지 현안은 물론 회원의 다양한 생각

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천지협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며, 나아가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인천지협은 타 시·도협회에 비하여 열악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올곧게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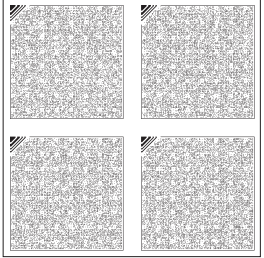
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체운영, 지역사회 장애인자조단체로서의 위상복원, 조직 활성화 및 지원강화, 미래지향적 사업 활성화를 기본운영지표로 인천광역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장애인자조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적·경제

적 약자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인천시협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무뎌무뎌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뜨거운 열정과 굳은 철학으로 무장하고,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며 인천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 시·도협회장 취임사

광 주 협회장 최남규

먼저 30여 년을 광주지역 장애인을 위하여 불철주야 장애당사자주의와 지역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인권을 위하여 초석이 되어주신 이재홍 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장애인의 자립과 혁신,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지역장애인 간의 화합과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임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의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건설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의 자립을 도모하고, 혁신을 통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협회의 역점사업인 정회원 확충은 물론 사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 입니다.

또 지역장애인의 권익은 물론

인식제고와 이미지 개선 등 사회적 자긍심과 자기가치를 함양하여 지장협이라는 장애인단체의 존엄한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행복한 지장협, 함께하는 행복한 지장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 전 협회장 구자권

안녕하세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으로 부임한 구자권입니다. 소중했던 2014년 한 해도 저물고 희망찬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대전협회에 많은 일

들이 있었지만,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새롭고 성실한 자세로 편안하고 포근하게 회원여러분께 먼저 다가서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재가장애인 등에게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동안 전력을 다해 성취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내 평안과 만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하오며,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소망 이루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 산 협회장 정태희

사랑하는 지체장애인 회원 및 가족 여러분! 2015년 올미년 청양띠의 해가 찬란한 빛을 내 뽐으며 활기차게 떠올랐습니다. 양(羊)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여 무리지어 화목하게 산다고 합니다. 2015년은 진실, 성실, 화합의 정신으로 개

인과 가정이 발전하고, 장애인 복지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크게 상승 할 것으로 기대 해 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와 도움으로 울산협회를 반석위에 올

리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임기를 명받았습니다. 늘 시작하는 가슴으로 회원 여러분과 회로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의 단추를 매려할

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삶의 질 향상, 권익신장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세 종 협회장 정금중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명품 장애인복지를 꿈꾸며 출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지도자와 회원이 한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

상, 장애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애인 인권증진과 복지발전, 나아가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복지 공동체 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올미년에는 세종시 장애인복지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확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 원 협회장 김흥수

우리 협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투쟁의 한해, 승리의 한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미년 새해에는 지장협 도약의 한해, 희망의 한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중앙회장님의 깊은 배려와 회원 여러분들이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힘입어 제9기 강원도

협회장에 재선임 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각오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단체로서 체계적이고, 정예화 된 조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협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겠습니다. 회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소통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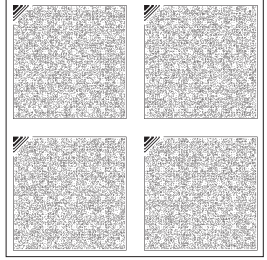
화하여, 아직도 비교적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 장애인복지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또 사회적 소외 계층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위협하는 절박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절망을 거

듭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모두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립하고,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저와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 시·도협회장 취임사

경기 협회장 김기호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따사로운 올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님 이하 이사님, 산하 시·도 협회장님, 시·군·구 지회장님, 중앙 산하 시설장님, 그리고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께 희망찬 새해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조항현 중앙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경기도협회는 본인이 임기 중인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장애인축제한마당, 향토문화탐방 등 다양한 행사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근로지원센터 개소와 장애인편의시설 연구를 위한 편의증진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산하지회 교육을 통해 체

제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후원회를 발족 하였고 각종 세미나, 종사자 실무교육 등 우리협회가 양질의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 및 지방 의회와 더불어 경기도 학교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

한조례, 그리고 장애인주차차 김이센터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새로 맞이하는 올미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가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충북 협회장 변창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비단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민들 모두가 우울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의 행사도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어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줄어드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은 2014년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닫고 다시 일어서고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2014년은 말처럼 생동감 있고 힘찬 기운으로 나아갔다면, 올해는 양처럼 온화하고 온순하게 조직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다름이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양의 성격을 닮아

가며 우리 협회도 조직원 간의 분열,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간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장애인 단체의 권위와 위상을 유지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내 잘못은 뒤에 있고 남의 잘못은 앞에 있어서 내 허물보다는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허물을 먼저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나간 일에 매달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

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반 복하지 않으려는 변화와 노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회를 비롯한 모든 협회가 하나가 되어 개인의 욕심이 아닌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충남 협회장 이견휘



수년간 업처럼 생각하며 장애인복지에서 일을 해 왔지만, 임명 받을 때마다 어깨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협회에서는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민원상담소, 편의시설 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도민족진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소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편의시설 설치 확대, 취업 알선 등 각종 사업을 펼치며,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5개 시·군지회 및 12개의 수탁시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단체, 기관, 충남도정과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공적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위해 더 세심하게 구석까지 미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장애인이 안정적 기반으로 자아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협회장 김형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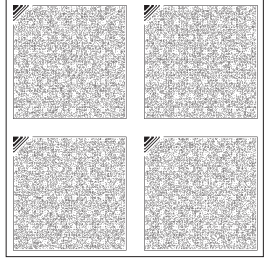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저는 제9기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임명발표와 함께 기쁨도 잠시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과 미래에 대한 각오와 설개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의 장애인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직이 불신과 이진투구에서 벗어나 신뢰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고 진취적인 성격

으로 탈바꿈하기를 희망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회적 대변인이자 정치가였던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미국의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그의 비전과 소통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더의 철학이

조직의 비전이 되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비록 미숙하고 서툴더라도 시간을 갖고 소통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 모두 공통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의 결속력 강화는 물론 생동감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젊은 지도자를 육성하여 지역 내 장애인 단체의 리더로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협회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긍정적인 사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주시요. 여러분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선봉자이며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 시·도협회장 취임사

전 남 협회장 장재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저는 제9기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장재곤입니다.

제가 전남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저를 믿고 전남협회를 맡겨 주신 김광환 중앙회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전남협회는 하나의 협회로서가 아니라, 전남 15만여 장애인들과 22개 시군지회장님, 그리고 유형별 단체와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하는 공동의 장을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취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하여 비장애인

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협회가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회원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 북 협회장 김영식

언제나 자랑스럽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에 경북협회 협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나 올 한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경북협회는 임직원분들과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

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협회장이라는 큰 무게를 제 어깨에 얹어 주신 만큼 협회를 잘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큼니다. 끝없는 투쟁과 쟁취,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시간이 제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어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

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여건은 여전히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변화를 원한다면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담감을 느끼는 무게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장애인에게 더 밝은 미래,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상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며, 희망찬 2015년 올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 남 협회장 김덕선

안녕하십니까? 제9기 경상남도 협회장을 맡게 된 김덕선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벌써 12월이 완연히 다가온 가운데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3년 동안 봉사할 기회를 주신

김광환 중앙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는 늘 두려움이 따르고,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장애인복지

에 대한 열정을 옆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임기동안 협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둘러 가기보다는 한걸음씩 정확히 나아갈 것이며, 때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피해가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씩 정확하고 명확하게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모든 것이 튼튼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초지일관 '처음처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협회장 부형중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부형중입니다. 먼저 제주지장협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김광환 중앙회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이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주

협회는 지난 30년간 지체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사회와 행정기관에 장애인복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당사자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묵은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

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변혁이 아닌 새로운 것의 폐단과 옛것의 가치를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은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장애인들 편에 서서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장협,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00여 명 참여해 건강과 화합 도모

‘2014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제14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11월 23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회원,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제주지역 지체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 선 정진호(제주지장협 제주시지회 부회장), 박대진(서귀포시지회 안덕분회), 고명숙(제주시지회 삼도동분회) 씨에게 도지사 표창패를, 김홍주(제주시지회 감사),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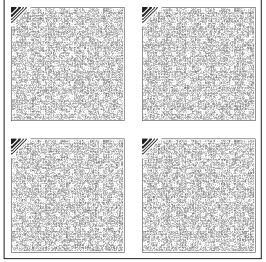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정희(서귀포시지회 동흥동 분회), 이경훈(제주지장협 주임) 씨에게 도의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열린 본 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라잉

소리로 읽는 새보람



디스크, 컬링, 휠체어이어달리기 등 9종목을 진행했다. 최종 우승은 서귀포시지회(지회장 강유민)가 차지해 박수를 받았다.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연령제한 없이 중증·경증장애인, 장애인 가족 모두 참여해 참가자의 건강증진과 제주도 장애인활동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체육대회는 도의회 구성지 의장 및 도의원들,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등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등 김치 1200박스 전달

대구지장협 김장 봉사



김장 봉사 참가자들이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이하 달구벌복지관)과 함께

‘2014 행복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12월 9일 달구벌복지관 앞마당에서 대구지장협과 복지관 임직원, 8개 구·군지회 임

직원 및 봉사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김장 봉사를 시작했다.

전날부터 눈이 내려 바닥이 얼고 찬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봉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김치를 버무렸다. 아침부터 시작해 늦은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 된 김장은 1200박스에 담겼다.

대구지장협 김창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게 지내는 지역장애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김치는 대구지역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취약계층 1200세대에 전달됐다.

쌀 75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

안양시지회, 2014 스카우트 행복 나눔 기금 전달식



한국 스카우트 안양과천지구에서 쌀을 지원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지회장 강명선, 이하 안양시지회)는 한국 스카우트 경기남부 연맹 안양과천지구 연합회(연합회장 김복영) 임직원과 이종걸 국회의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스카우트 행복 나눔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12월 5일 안양시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은 한국 스카우트 경기남부 연맹 안양과천지구 연합회 임직원들이 일일차집을 운영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행복 나

눔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복 나눔 기금으로 구입한 쌀 20kg 75포를 전달 받은 안양시지회 강명선 지회장 외 임직원들은 항상 장애인들을 위해 물심양면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는 김복영 연합회장과 임직원들에게 경의의 뜻을 표했다.

후원받은 쌀 75포는 지회 정회원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선별해 배분했다.

양주시지회, 양주우리병원과 MOU

지체장애인과 가족에게 의료서비스 혜택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지회장 이진갑, 이하 양주시지회)가 양주우리병원(원장 김인상)과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정 의료기관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주우리병원의 ‘지역 의료나눔 서비스’의 일환으로 열린 협약식은 진료 시 양주시지회 회원 및 직원에게 의료비 감면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약을 가졌다.

김인상 원장은 “영리를 추구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상생하는 맑은 병원을 만들고자 협약을 맺게 됐다.”며 “협약을 계기로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장협,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마음 열고 화합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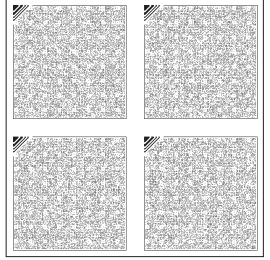
하동군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남지장협)가 11월 21일 하동군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대회는 더부러합주단과 사물놀이 등 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열기를 불어 넣었다. 경남지장협은 대회사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모여 서로 마음을 열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화합의 결실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본 대회에서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도지사상은 단재 주식회사 나누리, 경남지장협 창원지회 표일수 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 함양군지원센터 김민곤 씨가 수상했다. 도의회의장상은 경남지장협 진주시지회 조영경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감사, 양산시지회 박양숙 과장, 함안군장애인재활센터 이선아 사회복지사, 합천군지회 이성환 부지회장이 받았고, 지장협 중앙회장은 밀양시지회 김준식 회장, 창원시지회 서준수 후원회장이, 경남지장협회장상은 김해시지회 박연화 부지회장, 남해군지회 이대철 운영위원, 거창군지회 소장인 부지회장이, 하동군수상은 하동군지회 강상조 하동읍 분회장이, 하동경찰서장상은 구제동 특별교통수단 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게임과 지식왕 선발로 화합을 다졌고, 초대가수 공연으로 열정을 함께 발산했다. 경남지장협은 앞으로도 한마음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화합을 다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300인의 밥상에 오른 정(情)

문경시지회, ‘함께하는 행복의 나눔 밥상’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12월 9일 ‘함께하는 행복의 나눔 밥상’ 행사를 실시했다. 문경시지회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장애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배식을 모두 맡았다.

산복면 고덕환 분회장의 재

능봉사로 이뤄진 나눔 밥상엔 자장면과 과일, 음료 등이 풍성하게 올랐다. 자원봉사자들은 식당 안내에서부터 배식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식판 나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눔을 진행했다.

고덕환 분회장은 “밥에는 따뜻한 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함께 밥을 먹어 기쁘고, 다

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문경시지회는 12월



문경시 지역 장애인 300여 명이 모여 나눔 밥을 먹고 있다.

3일 회원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나눔 온정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생활이 어

려운 회원 가정의 이동방문상을 통해 9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전북 지역 장애인 편의증진 전문가 워크숍

편의시설 실무교육 등 강의 진행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전북지원센터(센터장 김형근, 이하 전북센터)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2014년 시·군 편의증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14개 시·군 편의지원센터

장 및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김형근 전북센터장의 특강과 중앙센터 편의증진국 박성오 과장의 ‘편의시설 실무교육’, 송정기 세무사의 ‘연말정산 및 세무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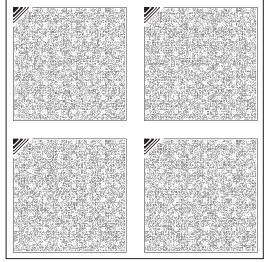
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형근 전북센터장은 참가자들에게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북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편의증진 업무 전문가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검은 보석과 사랑을 배달한 북부천사들

서울북부직재, 연탄 1000장 나눔



북부직재소속 장애인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직업재활 시설(원장 정연숙, 이하 북부직재)이 11월 27일 이웃에 연탄 1000장을 나눴다. 이번 봉사는 시설 장애인 스스로 후원에 동참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가족도 함께하며 연탄후원금을 모금해 이뤄졌다.

북부직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봉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연탄나눔에 대해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지만 추운 겨울에 힘들게 생

활하는 이웃을 위해 즐겁게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전했다.

행사 당일 다행히 추위도 한풀 꺾여 수월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연탄은행에서 준비해 온 연탄 1000장이 이들을 반기듯이 길 한쪽을 들쭉하게 지키고 있었다. 시설 장애인들은 길에 쌓여 있는 검은연탄에 긴장과 부담감을 느끼는 듯 표정이 굳었지만, 북부직재 정연숙 원장의 “화이팅” 소리에 금세 웃으며 연탄을 날랐다. 옷이 연탄으로 많이 오염돼도

개의치 않고 웃으며 연탄을 나른 결과 2시간 만에 1000장을 모두 배달했다. 총 10가구의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의 창고에 연탄이 채워졌다.

이날 북부직재 중증지적장애인 36명, 가족 14명, 직원 및 자원봉사자 8명, 노원구청 장애인 지원과 정영자 과장 이하 직원들이 참여했다.

영천장북, 2014년 후원행사 개최

‘내 생애 가장 따뜻한 하루’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은 11월 27일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겨울철 난방비와 가전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2014년 후원행사(부제- 내 생애 가장 따뜻한

하루)’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반야월막창 영천점에서 먹거리 판매 형식으로 펼쳐졌다. 지역시민 및 기타 유관기관, 장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재근 관장은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천장북이 지역 장애인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칼럼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인숙 관장

500만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협회의 재도약을 꿈꾸며

현재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를 단순한 개인 당사자의 문제, 의료적 문제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환경적 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는 생태학적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속에서 2014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과연 우리 협회와 장애인복지의 실천 공간인 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등 모든 협회 산하시설이 장애인복지의 시대적 소명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에게 당면

해 있는 생존권의 해결은 물론이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로 특수목적을 위해 결성된 선구자적 단체로 태어났다. 장애인 복지가 척박한 시기에 설립된 이후 30년 동안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故장기철 회장의 가치 철학을 실천하고자, 장애인의 말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칠고 메말랐던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하며 오늘의 지장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앞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과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조직은 정체되어 있거나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협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0만 장애인이 우리에게 여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제2도약의 미래를 꿈꿀 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 지체장애인협회가 500만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선도하고 그들의 인권과 권익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에 감시자로, 복지정책의 제안자로, 장애인 복지 서



비스의 평가자로 핵심 역할을 하는 현장의 중심에 서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협회의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에 막중한 책임

감을 통감하면서 더욱 역동적인 참여와 연대감이 강화되길 바라며, 급변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에 능동적인 도전의식을 기대해 본다.

용인치인장복, 문화예술캠프 꿈트리

장애아동과 형제자매가 함께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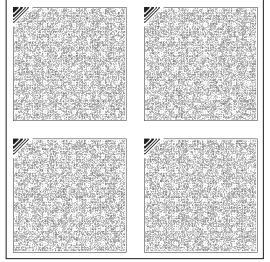


용인치인장복에서는 11월 29~30일 꿈트리 캠프를 실시했다.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치인장복)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2014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과 형제자매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캠프 꿈트리(꿈나무)'를 실시했다.

캠프 기간 KBS아트홀에서 모래랑빛이랑 샌드아트 체험을 진행하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눈의 여왕'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꿈트리 캠프를 기획한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장애아동과 형제자매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공감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용인치인장복은 앞으로도 장애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꿈트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과 형제자매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고용 사업체 간담회 실시

아산장복, 지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아산장복이 장애인 고용 참여 사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잡(job)을 잡(job)자'에 참여한 사업주와 직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12월 11일 아산관내 '일미정'에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의 지원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에 함께 한 사업장의 장기고용을

모색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에 방해가 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13명이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명이 현장훈련을 통해 직업을 경험해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1년 동안 함께 해준 사업체의 사장님과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한 사업체 대표자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경험이 없어 장애인들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실하게 일 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며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다."고 전했다.

부터 비행기 탑승과 좌석 앉고 내리기부터 도전이었다.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숙소에 아쉬움을 느끼며 제주 여행을 시작했다.

정읍장복 측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갑게 이용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현실의 벽을 아쉽게 느끼며 다이내믹한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읍장복과 이용자들은 여행봉사를 자청해 준 정읍라이온스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중증장애인, '내 생애 첫 제주여행'

정읍장복, 정읍라이온스 봉사자와 동행

"여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한 페이지지만 읽은 책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

선택과 기대를 품고 추억을 만들러 다녀오는 여행. 각지의 여행지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지만,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설치 부족으로 여행지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멀리 떠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은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매년 2회씩 전국 관광명소를 다니고 있다.

11월 24~26일 정읍장복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13명과 함께 2박3일 제주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당일, 새벽 출발

진천장복 직업훈련반, 거제도 가을여행

개관 이래 첫 캠프 의미 더해



진천장복 직업훈련생들이 캠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 직업 적응훈련반은 일상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생들의 자립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프를 실시했다.

'Fun Fun한 가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1월 19~20일 거제도 일대를 다녀 온 이번 캠프는 개관 이래 처음 진행했으며, 직업훈련생 8명과 인솔자 3명이 참가했다. 1박 2일간 배를 타고 외도와 해금강을 둘러보았으며, 포로

수용소에서 미로체험을 하고, 신선대와 바람의 언덕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업훈련생 이재현 씨(24세)는 "직업 적응훈련반에서 경지 좋은 곳으로 여행을 와서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장복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복지관 이용객 및 직업훈련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지난 11월 새보람 260호 '산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행' 기관명을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아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 정정합니다.

2014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슈들

2014년 장애계는 장애인 염전 노예사건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며 뜨겁게 한해를 시작했다. 이어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기게 됐다. 이에 장애계 역시 국가적 애도기간을 함께하며 필요 행사들만을 작게 진행했다.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수어법 제정 등의 정책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또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들이 진행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제11기 시·군·구지회장 선임내정자 교육을 시작으로 경북협회사태관련 경북규탄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제9기 시·도협회장 선임 등 바쁜 한해를 보냈다. 본지는 2014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지난 여정을 둘러보고 다가오는 2015년 한해 활동의 방향들을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편집자주〉

1월

■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들이 대회에 참가해 김광환 중앙회장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2014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장협의 역사성 재정립을 위해 협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양경자 전 국회의원의 고문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지장협은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정직한 업무 수행, 신뢰 받는 조직문화 창출, 공익 발전 추구 등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장협 윤리헌장'

우리는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확고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킴으로서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중앙회를 비롯하여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및 산하 시설의 모든 임직원은 협회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배제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관을 갖고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협회의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각종 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창의적사고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공익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11기 시·군·구 지회장 내정자 직무교육을 수강한 지회장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11기 전국 시·군·구지회장 직무교육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장애인 지도자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장협은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11기 지회장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인천·전북·충북·충남·제주·강원·경남,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경북 등 권역별로 나눠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했다.

2월

■ 지장협·장고협, 장애인 복지 발전 위한 MOU 체결

지장협은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협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장협과 장고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해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3월

■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순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 시·도협회 및 시설을 순시했다.

3월 한 달 동안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전남, 대전, 경남, 부산, 대구, 충북, 세종, 전북 지역을 방문했으며 4월에는 경북, 울산, 제주 지역을 순시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방 조직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회와 지방 조직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조문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가적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지장협도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취소하고 분향소 조문에 동참했다.

6월

■ 6·4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개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내·외빈, 장애인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월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을 열고 당선인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장협 회원 및 관계자 24명을 포함해 총 87명(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56명)의 장애인 당선인이 선출된 바 있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국 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장애인 당선인이 참석해 민선6기 임기 동안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 및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당선인들에게 지역 장애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제는 장애인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제안자, 정책의 입안자로 도약하는 시대가 왔다"며 "전국 500만 장애인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7월

■ 지장협, 미션·비전 선포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장협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장협은 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산하 시·도협회장, 시·군·구지회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날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미션으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사자단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지장협,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는 지장협'이란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과거의 잘못된 관행 타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지장협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한 "지장협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느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4대 실천과제로 민주적·안정적 조직운영,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 위상 복원, 미래지향적 장애인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향상과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 3년 동안 협회 조직원과 회원들이 협력해준다면 목표한 일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장협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지장협 미래비전

미션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지장협 · 당사자단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지장협 ·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지장협 ·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는 지장협 	
실천과제	4대 분야 14개 실천과제	
	민주적, 안정적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시스템 투명성 강화 · 지방조직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회 특화사업 개발 보급 ·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 위상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주의 적극적 실현 ·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구현 · 지장협 30년 기념사업 추진
	미래지향적 장애인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 문화예술레저사업 저변 확대 · 장애인고용사업의 내실화 · 장애인복지사업 선도 및 국제교류 확대
	장애인인권 향상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추진 · 장애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9월

■ 경북 동일명칭 법인허가 관련 집회



지장협 산하 전국 시·도협회 회원들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경상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와 동일한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이하 비대위)는 경북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서울 국회의사당 및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산하 시·도협회장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8월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를 명칭으로 하는 신규 법인 설립을 허가하자 경북도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신규 법인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신규 법인의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경상북도가 동일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장애인 단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상북도는 신규 법인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와 명칭이 엄연히 다르며 설립 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비대위의 강력한 요구에 경상북도는 신규 법인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어 지난 11월 신규법인의 명칭이 '경북장애인복지협회'로 변경되었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비대위도 12월 10일 해단식을 가졌다.

10월

■ 2014 전국지체장애인지원대회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축제 '2014 전국지체장애인지원대회'가 10월 2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모범 중증장애인 부부 50쌍을 초청해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장애인 배우자를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온 10명의 중증장애인 배우자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제27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제27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 참가한 장애인팀이 사물놀이를 연주하고 있다.

11월

■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지원대회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지원대회가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지원대회'가 개최됐다.

KBS 김성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호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자랑스런지체장애이상 대상'(국회의장상)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지원회 손영호 협회장(지체장애 3급)이 영예를 안았다.

■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제9기 시·도협회장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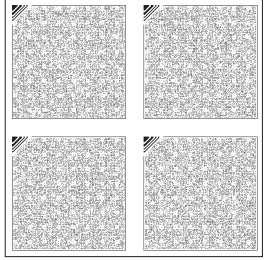
제9기 시·도협회장들이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 26일 이문센터 다목적실에서 제9기 시·도협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지장협 전국조직의 새출발을 다졌다.

지장협 17개 시·도협회 중 13개 지역은 연임되었으며 인천(임순봉), 광주(최남규), 전남(장재곤), 경남(김덕선) 4개 지역은 새로운 협회장이 선임됐다.

연임된 지역은 서울(손영호), 부산(김광표), 대구(김창환), 대전(구자권), 울산(정태희), 세종(정금중), 강원(김홍수), 경기(김기호), 충북(변창수), 충남(이건휘), 전북(김형곤), 경북(김영식), 제주(부형중) 13개 지역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아름다운배우자상 수상 시기

김주문 · 이수영 부부

“그대와 함께 걷는 길”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아름다운배우자상을 수상한 이수영 씨와 남편 김주문 씨

가족의 반대에도 사랑 선택

우리가족이 뇌병변 장애1급인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려니 벌써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각장애인 자원봉사를 시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밀알선교단 부산 1기모임이 시작이었습니다. 친구 찾기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해맑은 웃음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는 연애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친정식구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시댁 식구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의 반대는 제 결혼생활에 있어서 영원히 아픈이고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 반대 이후로 친정어머님은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고, 저 역시 친정에 간 적이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다른 친정엄마들은 딸 사는 게 궁금해서라도 와 본다고 하던데 너희 친정엄마는 와 한 번도 안 와 보노?”라고 남들은 묻습니다.

결혼한 지 26년째로 아들 둘을 낳아 큰애가 20살인데도 여전히 친정식구

와 왕래가 없습니다. 남들은 명절에 친정에 잘만 가는데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친정어머님이 참으로 저만큼 독하고 냉정하다는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힘들지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화목한 가정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친정식구들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다가 장애인협회를 통해 합동결혼식을 올렸는데 친정식구들은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보다도 친정식구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중 장애 판정과 생활고

남편은 장애인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고, 저와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가정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비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몸이 나빠지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비증상이 더 심해져 다른 병원 여러 곳을 찾아 검사 했지만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MRI를 찍어야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권한 병원도 있었지만, 그만큼 돈이 없었기에 진통제만 받

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린 데 났던 격으로 시아버님이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늘어가는 아버님의 병원비와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학비는 저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몸도 병약해지고, 시아버님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의 증상이 악화돼 혼자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돌보는 한편 아르바이트나 부업, 식당일, 노점 가릴 것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목척추가 심하게 아파 급히 병원에 갔는데, 날벼락 같은 진단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지 마비며, 어깨가 빠지고 신경을 눌러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통증이 진행된 상태라는 말이었습니다. 욕창도 엉덩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욕창은 2기밖에 퍼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입원치료는 너무 큰 벽이었습니다. 결국 약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누워 지낼 수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해 욕창이 4기까지 퍼졌습니다. 변을 볼 때도 40~50개의 관장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병원에서 이중 장애(뇌병변 장애의 2차

장애 증상으로 척추가 딱딱해지고 뼈색이 회색으로 변색되며, 마비증상이 나타나 몸의 기능저하와 대소변 감각이 없어진다.)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남편의 약값으로 생계가 힘들었지만 우리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이 호전되지 않았지만, 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낡은 차지만 우리 집 첫 번째 보물인 다마스는 남편과 병원에 가던 도중에 엔진이 퍼지는 바람에 움직이지 못해 가지도 못하고 난감했던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고장 나면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아는 대리점 소장님께 차 수리를 맡기는데 워낙 오래된 차니 차라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희 형편에 중고차 구입은 버거웠습니다. 남편을 태우고 병원과 네발보조공학센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결국 망가져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지자 외출이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속상했습니다. 서로 눈만 봐도 어떤 마음인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편이 나아져서 남편의 외출이 쉬워질 수 있도록 리프트 차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를 사면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강원도도 가보고 통일전망대도 가고 싶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사랑은 원래 변하기 쉽고 정은 깊어질수록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미운정 고운정> 노래 가사처럼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지지 않고, 무서운 장벽을 함께 넘으며 남편과 손잡고 걸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걸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남편과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절망처럼 깊은 골짜기, 높은 산에 막히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더 열심히 살아 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남들보다 좀 더디고 느리게 움직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용기 내라고 기도해 주세요.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한목소리'

이명수 의원, 보조기기 입법화 세미나 개최

국회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회장 박성권) 나사렛대 재활연구소와 공동으로 '보조기기 지원법 입법화 세미나'를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인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와 발제자인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대구대 이근민 교수,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정종수 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임숙영 과장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법 제정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법률에 포함될 내용 즉 용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김정록 의원의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가지 보조기기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조기기 예산, 이미 법률 제정 추계 넘어서"

발제에 나선 육주혜 교수는 법률 제정 필요성과 관련 "우리나라 전체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이미 법률 제정을 위한 추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두 발의 법안의 조정을 통해 통합 법안의 제정을 목표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전달 체계 정비와 보조기기 생산, 유통,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안정적인 수요자의 정비는 국가적으로도 보조기기 산업 분야 성장과 해외 진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했다.

육 교수는 법률의 관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조기기 지원법 입법화 세미나'가 열렸다.

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경로의 보조기기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장애인 등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구조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서의 각기 다른 보조기기 지원 경로와 절차에 대한 체계적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또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 등으로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원 범위는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확대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 개념의 법적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선택과 관련 육 교수는 "보조공학기기와 학습보조기기,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법적 용어로 '보조기기'라는 명칭 사용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보조기기센터, 국립기관 설치 운영해야"

보조기기 전달 체계에 대해 육 교수는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조공학 서비스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앙보조기기센터, 광역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가 필요함이 도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연구개발, 대국민 보조기기 DB 종합정보, 온·오프라인 안내, 교육연수 및 홍보, 품질 인증, 국제교류 등 정책과 연구 성격으로 국민 대상 광범위한 보조공학을 다룰 수 있는 국립기관으로 국가 전체의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아우르는 주체를 일컫는다.

광역, 지역보조기기센터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위탁하여 사용자와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역할, 센터명은 보조공학센터가 보다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자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보조공학사 부문에 의견도 제시됐다.

육 교수는 "현재 보조공학사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어 보조공학 전문가 인증으로 최초 제도권에서 운영되는 과정"이라며 "향후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보조공학사 자격이 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발전하여 보조기기 서비스, 제작, 개발, 유통, 인증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조공학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질인증 시스템에 대해 육 교수는 "품질인증과 관리의 체계화 및 강화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각각의 의료기기, 의지보조기, 공산품, 고령친화 우수용품, 콘

텐트 및 프로그램 등록 또는 인증 절차를 유지하면서 비인증, 맞춤형 제품들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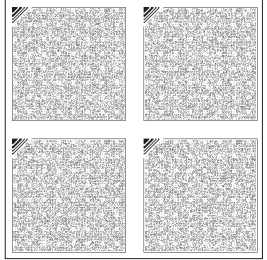
또한 "제품과 업소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품목 인증과 업소 지정 시 각각의 인증 형태, 부처 등이 정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육 교수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한 품질인증, 표준화, 산업화가 가능하다면 이상적인 형태"라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 등 타 부처 기관들과 중앙보조기기센터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록·이명수 의원 발의 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등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 보조기기의 정의: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시키고, 장애를 예방하거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책 수립
 -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의 개발 및 관련 연구,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물관리, 보조기기 표준화 연구
 - 광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 보조기기 품질 인증
 - 보조기기 표준화
 - 보조기기 사업자: 보조기기 설계, 제작, 가공, 수리, 판매, 유통,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제공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하고 타 법령에 따른 지원 자료 부처간 확인 가능하도록
 - 보조기기의 핵심기술 및 우수 신기술에 관한 연구, 보조기기 관련 응용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 연구개발의 사업을 우선 추진
 - 우수 업체 지정
 -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 실시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2012,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보조기구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원회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에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조기구문제에 관한 전문가, 보조기구 사용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보조기구표준화의 국제화 등 국제협력 및 보조기구 지원
 - 보조기구사업자(제조자 및 판매업자와 대여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보조기구 설계, 제작, 가공
 - 보조기구지원센터: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보조기구 설치,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보조기구 표준화,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
 - 보조기구 교부·대여 또는 수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또는 대여
 - 보조기구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지원정책 및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지원 조치 등을 강구

소리로 읽는 새보람



‘청소년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영화 만들고 함께 즐겨요”



시네마테크에서 청소년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렸다.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뜻 깊은 나눔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ARCON)가 주관하는 ‘아트드림 영화제작소 청소년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제’가 12월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열

렸다.

‘청소년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청소년 영화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아트드림 영화제작소’를 통해 영화 제작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는 영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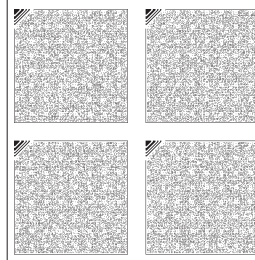
배리어프리 영화란 기존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대사 및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어 자막을 넣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아트드림 영화제작소’의 청소년들이 현장 멘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배우와 인터뷰를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관계기관을 방문,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를 바

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준비했다.

이번 영화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제작했다. 영화는 물론 사회 및 안내를 분담했으며 관람 수칙과 안내문도 직접 만들었다. 영화제를 찾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점자 영화리플릿도 준비했다.

이날 출품한 영화는 모두 여섯 편. 여중생 은수의 아트드림 영화제작소 체험기를 담은 공통골통의 <아트드림 영화제작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현실적이고 민에서 출발한 100%의 <365+1>, 아버지와와 따스한 추억을 담은 간장도둑의 <밥도둑>,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평범한 만남을 다룬 공통골통의 <만남>, 풋풋한 로맨스를 그린 청춘열차의 <러브레터>, 세월호 참사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핫세븐의 <Again>을 선보였다.

영화에 관심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진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한 ‘아트드림 영화제작소’는 인문·문화예술과 영화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능동적인 작품 제작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대병원 밀알첼로앙상블과 희망 음악회 발달장애인들이 환자들에게 희망 선사

전국대병원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첼로앙상블 ‘날개’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12월 1일 개최한 음악회에서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Ob la di ob la da)’, 로저 와그너의 ‘도레미송’, 캐럴 등 신나는 곡으로 환자를 격려했다. 이어 슈

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악장 E플랫을 첼로로 편곡한 곡과 드라마 ‘하얀거탑’ 삽입곡으로 유명한 B-Rossette로 실력을 뽐냈다.

지휘자인 오세란 씨는 “연주자들은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엔 연주로 환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고자 공연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날개’는 밀알복지재단 소속으로 전문 첼리스트를 꿈꾸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 24명으로 구성됐다. 2012년 10월 창단해 ‘세계 자폐인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이 공연하고 있다.

날’ 축하공연, 꿈다락 토요학교를 비롯해 단독 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증장애인 POP 손글씨 전시회 열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교육생 작품



중증장애인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소장 서기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최하고

(주)오텍에서 후원하는 ‘2014 행복나눔N 캠페인 기금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POP손

글씨 프로그램 ‘글씨로 만드는 BMW(Beautiful My Way)’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12월 16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5일간 카페 별표에서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총 16회의 교육을 수료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벽면 가득 걸렸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은 “교육을 받으며 개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전시회를 통해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며 “무엇보다도 작품자들의 자신감이 향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은 작품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업계 및 커뮤니티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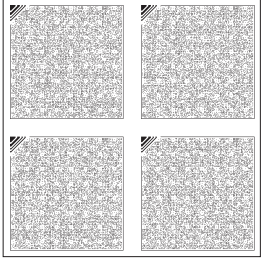
‘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 시사회 개최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방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청소년 교육을 위해 제작한 드라마 ‘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 시사회가 열렸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에서 공개한 드라마는 주인공 ‘지노’와 바람에 얽힌 아픈 기억(트라우마)이 있는 ‘소연’이 대안학교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겪게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둘은 서로 알아가면서 ‘지노’는 좋아하지 않던 자신의 배역을 좋아하

게 되고 ‘소연’은 ‘지노’를 통해 조금씩 바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우게 된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교육부, 삼성화재재보험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매년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공동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는 올해로 7번째 작품이다. 이번 드라마는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성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가 열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20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 사이클대회'가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 전날인 11월 14일에는 코스 설명과 답사를 진행하고, 본 대회인 15일 오전 9시에 장애

인과 비장애인 600여 명(선수 450명, 운영요원 및 관계자 150명)이 경기장에 모였다. 이날 장애인인 이동수단인 휠체어를 자전거로 만든 휠체어 사이클과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타는 텐덤 사이클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코스는 두 가지로, 7km 부문은 휠체어사이클 장애인들이 참가했고 21km 부문은 장애인 선수(시각장애, 청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했다. 각 부문 우승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그 밖에 참가자들은 사이클이

외에도 펼쳐진 10가지 이벤트에 참여하며 풍성하게 행사를 즐겼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을 후원 받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사이클을 주요종목으로 선정해 국내기술 개발과 생산에 힘 써왔다. 개발

한 국산장비 150여 대를 2년간 전국에 무상 보급해 휠체어사이클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전국에 보급된 장비로 꾸준히 운동해 온 휠체어사이클 동호인들이 직접 참가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체육 축제를 만들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스포츠 대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출전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여자 휠체어사이클 2관왕 이도연 선수와 은메달을 획득한 이승미 선수, 남자 휠체어사이클 2관왕 김용기 선수가 참가했다. 이 대회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했다.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APC 스포츠 어워드 특별상 수상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우수한 경기력 발휘 인정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APC(Asia Paralympic Committee) 스포츠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했다.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야스 비세로이 호텔에서 열린

APC 스포츠 어워드에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성일 회장은 지난 10월 41개국 40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장도 겸해 왔었다.

한국팀은 금메달 총 72개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 2002년 부산대회 이후 처음으로

로 종합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2014 APC 정기총회 바로 전날 열린 APC 스포츠 어워드에서는 베스트 남자선수상, 베스트 여자선수상, 베스

트 남자청소년상, 베스트 여자청소년상, 베스트 남자팀상, 특별상 등 7개상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기공식 첫 삽

2016년 3월 완공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중심점으로 기능할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기공식 첫 삽을 떴다. 12월 9일 제주시 외도

1동 외도구장 옆 5874㎡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귀연 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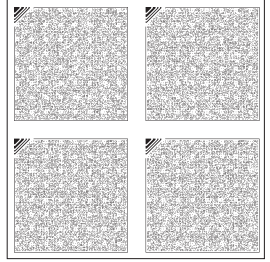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을 포함해 총 예산 140억 원을 들여 지하 3층과 지상 3층, 연면적 5269㎡ 규모의 건물로 지을 예정이다. 2016년 3월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재활·생활 체육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도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제주도에 최초로 생기는 종합적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2년 3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고, 7월 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4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최근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 옹호와 코미디언의 유산, 스텔라 영 32세로 영면...누리꾼 추모 물결



호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스텔라 영. 스텔라 영을 추모하는 누리꾼들이 트위터에 휠체어 사진을 게시했다(사진 : The Washington Post).

호주 코미디언이자 장애 활동가로 알려진 고 스텔라 영이 12월 6일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BC 뉴스의 가족 성명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였다.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난 그녀는 85cm의 키에, 생활의 대부분을 휠체어를 사용하며 지냈다. ABC의 램프업 웹 사이트의 편집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호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

는 공공의 건물에 대부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내가 앓고 있는 뼈가 파괴되는 병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며 장애인 이동 편의 증대를 역설한 바 있다.

시드니 TED 토크쇼에서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낮다."며 "낮은 기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며 사회의 편견에 대해 당당하게 견해를 밝혔다. 너무 정치적인 것 같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녀는 "장애인은 몸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그녀는 코미디언으로 활동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유머를 사용했다. 올해 멜버른 국제 코미디 축제에서도 장애인 편견 해소를 소재로 한 유머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의 사망 후 '인생의 유일한 장애는 나쁜 태도'라고 강력히 발언했던 윌립이 호주 전역을 흔들고 있다. 호주인들은 그녀의 휠체어와 사진, 지팡이 등 그녀를 상징하는 사진을 추모의 의미로 트위터에 게시하며 명복을 빌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 보안 강화 법안 통과 예정 다운증후군 딸 둔 아버지의 8년간의 노력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금융 보안 강화 법(ABLE법)이 12월 3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8년 전 다운증후군 딸을 둔 아버지 릭 스가 작안했다. 그는 딸 오드리에게 충실한 아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재무 설계 세미나에 갔다가 장애인인 딸을 위한 설계는 왜 없는 것일까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이 비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었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장애인을 위한 더 유연한 설계,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북부 버지니아 부모 그룹의 부의 테이블 논의부터 시작했다. 십 년 동안 끈질기게 장애인 가족과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과 함께 가다듬어 만든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재무 설계 교육은 물론 세금 우대 저축을 포함했다.

사라 하트 위어 국립다운증후군협회 임시 사장은 "이 법

안은 다운 증후군 장애인 및 기타 지역 사회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돈을 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른 지지자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 수백만 명이 미래를 위한 저축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수쳤다.

물론 일부에서는 부유한 가족을 도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앨리스 장애 옹호 네



아버지 릭 스(왼쪽)와 그의 딸 오드리 스(오른쪽)(사진 : The Washington Post)

크워크 이사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장애인 가정의 많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도왔다.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로 하원에서 승인 받은 이 법은 현

재 상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사회는 이 법안의 제정은 보편적 성장과 지적 장애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 학생, 근접센서 이용한 장애인용 지팡이 개발 삼성전자, 중남미 '솔브 포 투모로우' 시상식 개최

삼성전자가 12월 8~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1회 '솔브 포 투모로우(Solve for Tomorrow)'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물론 현지 미디어, 교육 관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삼성전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각각의 출품작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최종 심사위원단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7개국, 9개 학교의 아이디어를 우승작으로 선정했다.

브라질 학교에서는 근접센서를 이용해 장애인용 지팡이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역사회 현안을 풀어갈 톱톡 튀는 출품작으로 수

상의 영광을 안았다. 삼성전자의 '솔브 포 투모로우'는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의 경연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전자 칠판, PC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중남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솔브 포 투모로우' 대회에는 지역환경 개선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중남미 2,200여 개 학교, 2,700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이 참여했다.

2014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워크숍

전국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과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편의증진 기여 8명 표창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는 전국 센터장 및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보문 컨벤션리조트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센터장 역량강화 및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후원으로 성공리에 개최했다.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는 2004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 중앙센터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센터 및 230여 개 기초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와 교육활동, 기술지원, 국가사업 수행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편의센터 워크숍은 전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편의센터와 협회의 발전방향, 나아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또 각종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중앙센터장 및 각 지역별 광역센터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증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중앙센터 박경준 사원, 대구센터 이승수 팀장, 전남 신안군센터 김기철 센터장, 전북센터 김동원 차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편의시설 설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센터장으로부터 경남김해센터 황규덕 팀장, 서울종로센터 김안나 팀장, 인천센터 우재홍 담당관, 경북경산센터 박영표 팀장 등 총 4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광환 중앙센터장이 '편의센터의 위상과 조직원으로서의 자질'을 주제로 강연했다.



편의센터장 역량강화 및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편의센터 역량강화 교육 진행

워크숍 첫날 역량강화 교육 시간에는 김광환 중앙센터장의 '편의센터의 위상과 조직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강의가 열렸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 강인철 과장의 '편의증진 정책의 방향' 및 중앙센터 홍현근 국장의 '편의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광환 중앙센터장은 교육에서 편의센터 직원들에게 "젊을

때 공부하는 자세를 갖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편의센터 직원으로서의 기본기', '장애인 인재발굴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 강인철 과장의 강의에서는 과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했던 시절부터 복지관 관장,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과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다양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편의센터 직원들에게 '장애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정책 방향 및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중앙센터 홍현근 국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편의센터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강조하였고, 편의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편의증진사 모의시험 실시

이튿날은 김용철 회계사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진 이호정 강사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의, 국가인권위원회 양영진 조사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한 장애인 차별사예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강의 중간에는 편의증진사 모의시험이 치러져 편의센터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역량이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중앙센터 홍현근 국장이 전날 치러진 편의증진사 모의시험에 대한 문제 해설을 하며 센터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편의증진 관련 법령, 기술협의 기준 등에 대해 집중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폐회식에서는 시험성적이 우수한 기술직원인 충남 부여 우인숙 팀장, 경북 구미 김명선 팀장, 경기 시흥 김현균 팀장 및 행정직원 경기 안산 이정옥 팀장, 경북 상주 변경주 팀장에게 중앙센터장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마지막으로 경기센터 이진옥 부장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수료증을 전달받으며 워크숍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편의센터 직원들은 "향후 편의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은 다음 워크숍에서는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협의 사례나 현장점검과 같은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편의센터 직원들의 편의증진 업무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최우수직원과 우수직원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김광환 중앙센터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편의증진사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고 용 상 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정기·정액 지급한 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 서울지법,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

회사에서 기본연봉 외에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기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 조호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

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 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사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특정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것

이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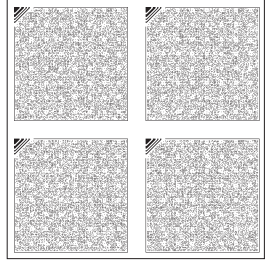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은 근무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통상임금과 월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급에는 근무수당 뿐 아니라 근속수당, 효도수당, 상여금 등 많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 많은 수당 중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명시된 것처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

소리로 읽는 새보람



당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면 받게 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 등 액수가 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근속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지급해야 할 수당도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너무 낮고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무췌록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임금에 신음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미숙아의 의료비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미숙아 보호자의 소득기준과 미숙아의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4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218천 원 미만, 지역보험료는 238천 원 미만)이며, 이러한 소득대상 가운데 미숙아의 경우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

아에 한합니다.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지원 사항은 미숙아로 체중이 2~2.5kg일 경우와 임신 37주 미만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5백만 원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미숙아의 체중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5kg 미만의 경우는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되는데 ①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②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 산정, ③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하여 지원됩니다.

Q)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도 있지요?

A)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하고 그 외 경우는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됩니다.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의 경우 의료(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진료비

15%를 전액 지원하며,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이외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있지 않나요?

A) 등록장애인인 경우 누구나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에 대해 총소득 3% 초과분에 대해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일정비율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전액이라는 것이 유념사항입니다.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A)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됩니다. 다만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초과(최저생계비 200~30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내용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하고 지원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특실 등 제외)합니다.

2014 하반기 취업자 간담회 개최

직장생활 공유와 근로 의지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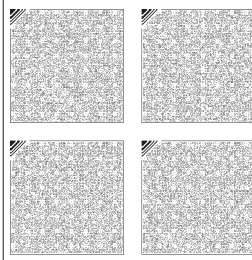
에델바이스에서 '2014년 하반기 취업자 간담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장 최성중)와 함께 '2014년 하반기 취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에델바이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상호 간의 인사를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직장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논의하고, 2015년 최저임금 안내와 고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 근로자는 "직장생활에서 느낀 점

소리로 읽는 새보람



과 겪은 일을 서로 공유해 다른 근로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직장생활에 임해야 할지 많은 팁을 얻었다."고 전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자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의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 등 전문 강의 진행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들의 자질향상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2014년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

장 경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전문 강의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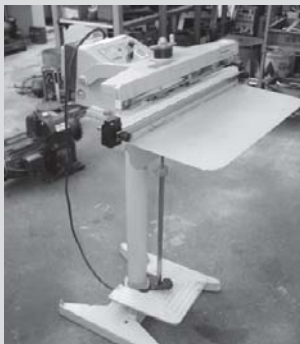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 노무법인 동방 손희삼 강사가 '효율

적인 인사관리', 하나경영경제연구소 이호정 전임강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강의했다.

우수 장애인 자립 작업장으로 선정된 동작구립보호작업장 이영호 원장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경영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비닐접착기계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빔프로젝터



중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더치커피기

2014 기능보강사업 실시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등 5곳 지원

근로장애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4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환경개선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여 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 5~17일 기능보강 신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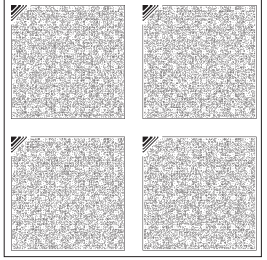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의 시설을 선정해 10월 29일 기능보강비를 배분했다.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비닐접착기계,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빔 프로젝터, 함평보호작업장은 TV, 종로구립근로사업장은 더치커피기를 설치해 11월 14일 결과

보고를 마쳤다.

지장협 관계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 필요한 기기를 설치한 작업장들은 장애인근로자의 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원하는 작업장이 많은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삼성토탈, 서산장복에 카운티 리프트 후원 장애인 순환버스 운영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준곤)은 11월 25일 삼성토탈에게서 카운티 리프트 18인승 차량을 후원받았다.

그 후 교통 여건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운행을 시작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한 1억 원을 지원받았다. 3년간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쓸 계획이다.

김준곤 관장은 “순환버스 운행으로 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특별후원금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전화신청 : ☎02)796-4280
-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4년 1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순)

강경민, 강성희, 김경아, 김경희, 김구환, 김동수, 김민영, 김성운, 김순덕, 김영진, 김인수, 김인순, 김재권,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지호, 김천시장애인복지관, 김현정, 김형욱, 김환경, 나금숙, 문민숙, 박규도, 박소연, 박종순, 박종형, 박현순, 반형만, 방승임, 배태환, 백금희, 서동녀, 김준곤, 선병욱, 손영호, 안병현, 우리은행노원지점,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유종표, 육근복, 육종구, 윤선민, 윤채환, 이남호, 이순영, 이용란, 이은정, 이태훈, 임채종, 장추자, 정다운, 정선용, 조기현, 조남희,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진미라, 최병철, 최선영, 하정미, 황보훈, 황정연,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IBK경동분부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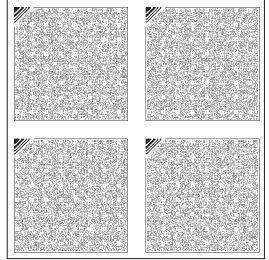
2. 생선이나 고기, 야채 따위를 밀가루에 묻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
4. 고양이과의 하나.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살쾡이를 길들인 것.
6.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8. 갈대로 채반같이 걸어 만든 그릇.
9. 전등의 위에 덮씌우는 물건.
10. 멀고 먼 길. 또는 그런 노정.
11. 사람이 걸터앉는 데 쓰는 기구. 보통 뒤에 등받이가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12. 식사를 공급함.
13. 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
15. 탈을 쓰고 하는 전통 극(劇) 양식
17. 타고난 마음씨.
19.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20. 탄산칼슘이 들어 있는 광천(鑛泉). 흔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21.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
23. 사랑하여 받지 아니함.
24. 강원도의 북부에 있는 명산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세로열쇠]

1.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3. '김병연'의 다른 이름. 늘 샷갓을 쓰고 다녔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5. 물고기들 인공적으로 기르는 곳.
7. 생물체의 개개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인자.
10. 음식을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
11.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소리로 읽는 새보람



14.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는 뜻으로, 노력함이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
16. 면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18.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
21.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22. 서로 애정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등급을 심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단체,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지나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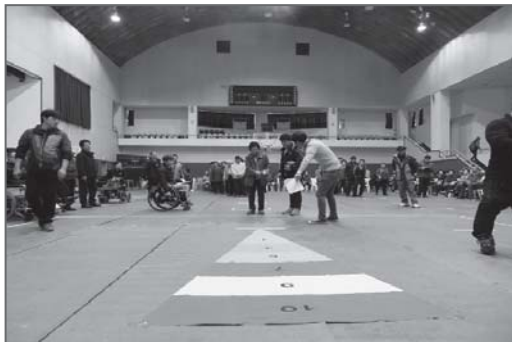
장애 등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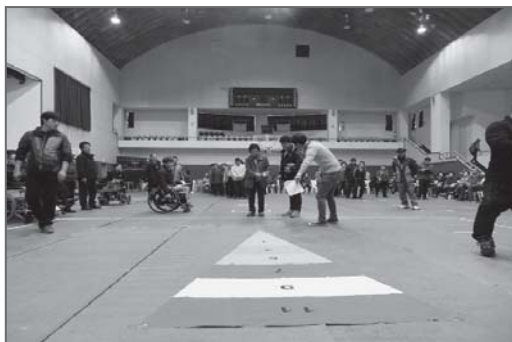
김태원 서울 노원구
이학운 경기 수원시
권정호 서울 노원구

다른그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23일 제주도에서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상아 속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학물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넨물, 달래물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물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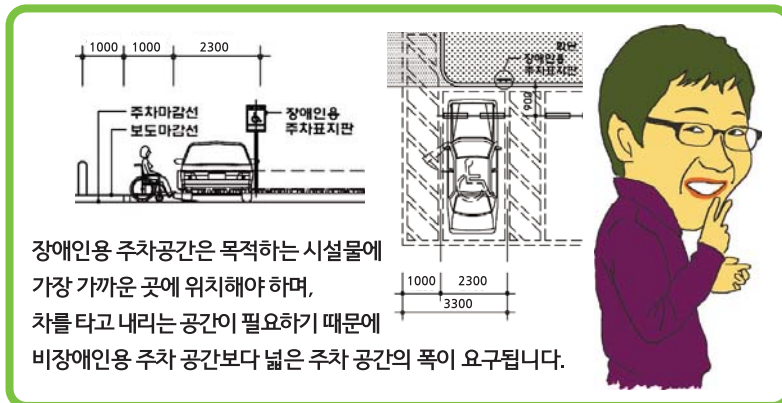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캠페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ATAC)에서는 2014년 편의시설인식개선을 위한 ATAC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편의시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크기, 위치, 바닥재, 주차표지

장애인 승하차를 위한 크기도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위치도 장애인주차표지도 전혀 맞지 않네요.
최근엔 울퉁불퉁한 바닥재도 종종 사용하시던데 그 위를 유모차라도 물고 한번 가보셨다면 이런 결정은 쉽지 않을텐데요.



장애인용 주차공간은 목적하는 시설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용 주차 공간보다 넓은 주차 공간의 폭이 요구됩니다.

